

*성함 : 강OO

*합격환 시험 : 2019년 서울시 일반행정직

1. 시험 지원 동기

미래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2. 과목별 공부 방법

공부 방법에 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은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

김철민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수업시간에 방대한 양의 기출문제를 나누어 주십니다. 기상청, 경찰, 소방, 법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까지 모두 망라한 자료를 끊임없이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제를 풀이해 주시고 또 제시된 문제뿐만 아니라 지문에 나오는 고유어, 한자어, 표준어, 국어문법 등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문제들도 짚어 주시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복습하는 시간에는 시험지에 있는 어려운 단어들은 사전을 찾아 품사와 뜻을 정리해 두고, 한자어의 경우는 한자를 적어 두고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단어 수첩을 따로 만들어서 기출 문제에서 본 단어들을 정리해 두고 틈틈이 암기했습니다. 또한 고전&현대문학의 경우 자주 출제되는 작품들은 주제와 작가, 줄거리 등을 암기해 두었습니다.

나누어주신 기출문제들을 수없이 반복해 문법, 독해, 어휘, 등이 단련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동형문제집을 통해 더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출문제들을 충분히 회독하지 않았다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이든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수험생활을 하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는 편인데 유독 영어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어 때문에 공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만족스러운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에 방해가 되는 점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단어는 오동훈 선생님의 1631단어장을 먼저 공부하고 이후에는 기출된 단어를 중심으로 만드신 단어장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평소에 잘하지 않았던 탓인지 몰라도 외워야 하는 단어의 양이 방대하고 단어 자체의 난도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암기하는 것 자체가 막막해 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 보아서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단어장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익는 단어들이 생기고 모르는 단어를 집중해서 다시 보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단어장 회독도 점점 빨라지게 되고 머리에 남는 단어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문법은 워낙에 선생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만 잘 들어도 문법을 익히는 데

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배웠던 방식과는 다른 구조로 설명을 하셔서 처음에는 익숙지 않았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에 문법 구조가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나면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빈출되는 문법은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 문제는 짧지만 포인트가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 전까지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해는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독해 유형을 중심으로 글의 종류를 파악하고 빠른 속도로 정확히 읽는 것이 중요해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끊어 읽기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긴 문장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읽다 보면 맥락 이해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 수식어 연결어를 표시하면서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는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시간을 정해 놓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긴장해서 문제가 더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미리 연습해 두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과목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사>

한국사는 기본서->필기노트->기본서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먼저 기본서를 충분히 공부하여 내용을 익힌 다음 필기노트 강의를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 필기노트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저 스스로 전 범위를 빈 종이에 적어 보면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조민주 선생님의 문제풀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하는 강의입니다. 또한 기출문제집과 동형문제집을 풀었고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 없이 모든 문제에 관련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크게 X표시를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보았습니다.

한국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보니 성적도 잘 나오는 편이었고, 더욱 열심히 하게 되다 보니 문제 푸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영어나 국어 같은 긴 시간이 필요한 과목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과목을 보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학>

행정학 역시 기본서->필기노트->기본서->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선택과목이지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이라 최옥진 선생님의 이론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한 필기와 기본서를 정말 많이 보았고, 기계처럼 누르면 나올 정도로 암기를 했습니다.

기출문제집은 최옥진 선생님이 정리하신 기출문제집을 보았는데 다른 문제집에 비해 해설이 잘 되어 있어서 복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마다 선생님의 설명을 필기해 두고 틀린 문제는 크게 X표시를 해서 톱툰 확인했습니다.

행정학 문제에서 난도를 높이는 부분 중 하나는 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법령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 두고 암기했습니다. 법령은 특히 열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숫자나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외우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법령을 외워야 하는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출제가 예

상되는 법령은 특히 더 꼼꼼하게 공부했습니다.

<사회>

사회는 심현보 선생님과 박태천 선생님의 이론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회는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은 거의 없지만 넓은 범위를 다루기 때문에 단순암기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로 충분히 암기를 한 뒤 문제를 풀면서 틀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사회문화 파트에서 표 문제가 곳곳에 나오는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연습을 했고, 경제 파트에서는 그래프 정확하게 보기, 탄력성 계산과 같은 계산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계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3. 영어집중관리반

기존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주시지만 문법이나 단어 같은 부분은 거의 무한반복 수준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특히 기출단어장을 가지고 수업을 해 주실 때는 수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많이 익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과목의 정규 수업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강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종로스파르타 장점

선생님들도 그렇고 관리를 해 주시는 담당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수강생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이나 직렬 관련하여 상담을 받기도 편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셔서 종로에서 수험생활을 하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소수로 관리되기 때문에 복직하는 교실에서 공부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학습실도 좋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5. 슬럼프 극복 방법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을 때에는 서울에 있는 박물관, 기념관, 궁궐 등을 다니면서 실제로 배운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답답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는 공부를 꾸준히 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책상 앞에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잠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려 버렸으면 합니다.

6. 면접시험 준비 방법

노량진 박문각에서 면접 수업을 듣고 면접 스터디 조를 짜서 모의 면접처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연습했습니다. 스터디를 하면 좋은 점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 온 이슈는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니 더 꼼꼼히 공부할 수 있었고 미처 알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이란 결국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나눠주신 자료 이외에도 면접 책을 따로 구매하여 꼼꼼히 읽어보고, 서울시 정책, 경험, 상황별 대답, 5분 스피치 등을 미리 정리해서 시간에 맞추어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7. 가족 및 고마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수험기간 동안 저를 걱정해주고 격려해준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항상 셋이서 붙어 다니며 같이 수험생활을 한 언니들, 선생님, 학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들 걱정해 주신 만큼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8.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국가직을 한 문제도 안 되는 차이로 떨어지고 나니 멘탈이 무너져서 1주일을 집에서 울면서 보냈습니다. 아마 그때 다시 일어서지 않고 포기했다면 서울시 최종합격자 명단에서 제 수험번호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더디게 달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찾아 올 것입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모든 노력은 합격으로 보상됩니다. 나태함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최종합격이라는 기쁨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요!